

‘신당 공식화’ 이낙연, 금태섭·양향자 연대 검토

제3지대 빅텐트 구축 나서
“이준석 등 생각하지 않아”
이상민 의원 합류 가능성
친명계 “사쿠라 노선” 격앙

내년 초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태섭·양향자 신당과의 연대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당내 비명마저 성급한 신당 추진에 반대하자 외부 세력과의 연대에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지지 세

력이 미약해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태섭·양향자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분을 만난 적이 있다. 만나서 각각 창당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힘내시라고 격려했다”며 “그리고 뜻을 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여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정책이나 비전에 공통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국가 위기에 대한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그다음에 정치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도 큰 줄거리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나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을 떠난 이상민 무소속 의원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1일 이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치의 일그러진 모습, 퇴행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했다”며 “여러가지 해법들에 대해 말씀을 좀 많이 나누자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자 당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명계 의원들은 “사쿠라(변절자) 노선”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대표를 만나 신당 창당 만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손잡고 윤석열 독주정권에 투쟁해야 미래가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에게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전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명(이재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도 신당 창당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숨 고르기가 필요한 숨 고르기 없이 갑자기 링에 뛰어들어 막 100미터(m)를 질주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웅천 의원도 같은 날 다른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선언에 대해 “저희랑 무관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며 “왜 저렇게 서두르지”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성진 “경제로 복지시대 열겠다” 광산을 출마선언

‘경제전문가’로 통하는 김성진(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14일 “광주 광산을 더 바른 정치, 더 나은 경제, 더 밝은 미래의 도시로 만들겠다”며 내년 총선 광주 광산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출마선언에 앞서 지지자들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김 전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으로 정치는 실종되고 경제는 파탄에 이르러 민생이 도탄에 빠진 상황을 타개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민주주의시대를 열고, 민책특



권, 불체포 특권, 무노동 무임금 등 국회의원 특권 축소에 앞장서는 등 더 바른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래차와 방산클러스터, 바이오헬스산업을 3대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미래 행복 도시를 만들어 저출산·고령화의 파고를 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오경훈 “지역중심 300분의 1 정치” 동남갑 출마선언

‘이재명의 기본사회연구소’ 오경훈(사진) 소장이 14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정치, 지역에서 중앙을 이끄는 정치를 위해 ‘300분의 1의 정치’를 나아가겠다”며 내년 총선 광주 동남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 소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우리는 중앙 정치라는 명분 아래 지역의 문제는 소외되고 중앙을 위해 지역의 소망들이 소비돼 왔다”며 “지역을 살리고 강화하기 위해 중앙이 지방을 위해 움직이는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소장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대표성을 가지고, 지방의 가치와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역할을 다하는 정치를



‘300분의 1의 정치’라고 부르고 싶다”며 “300분의 1 정치는 지역을 강하게 만들 것이고, 대한민국을 더욱 튼튼하게 세우는 시작”이라고 다짐했다.

더불어 “현재 지방은 저출생, 저성장, 고령화라는 메가 트렌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갈수록 암울해져 가고 있고, 광주도 예외가 아니다”며 “국회가 국민의 삶과 직접 연관이 없는 정치권력의 주도권을 두고 싸울 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7%인 월산5동의 소멸 문제와 함께 출산율 0.81명의 광주 남구의 문제를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손훈모 “순천 문제 해결 책임자” 총선 출마선언

손훈모(사진) 예비후보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손훈모 후보는 14일 “국회에 가면 제일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부터 뜯어고치고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책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개헌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후보는 순천의 현안으로 연향들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하며 “자원순환시설로 허울뿐인 포장을 해놓았지만,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시설인 거짓 껍데기”라며 “거짓 절차와 의혹 가득한 개발사업자 문제를 덮어놓고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후보는 △호pital·리조트 단지 및 종합병원 유치 △속초아이와 같은 대관람차



유치를 공약했다.

또 손 후보는 “순천의 분열된 정치로 인해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선배님들을 ‘원로회의’와 ‘갈등조정위원회’로 모시고, 회의제를 정례화해 지역 통합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다. 상향식 의사결정을 통해 당원들의 연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역소멸, 청년의 절망,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부 신설 △육아·보육·교육 국가책임제 △기업 지방 이전 촉진법과 환고향 우대 촉진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황지 기자



이재명 대표 찾은 대통령 참모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관섭(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수석대변인,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 이 대표, 이 정책실장,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

뉴스

영암 오리농장서도 AI 항원 검출… 긴급 방역

살처분… 반경 10km내 방역 지역

전남도는 지난 13일 영암 소재 육용 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의사 환축은 무안군 방역지역 정기 검사 과정에서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중이다.

전남도는 H5형 항원 검출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해 출입 통제 및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하고, 도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H5 검출농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 제한과 소독, 임상예찰을 실시했다.

발생계열 농장 및 관계시설에 대해 15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날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충남 1건, 전북 7건, 전남 2건, 총 10건이 발생했다.

최황지 기자

전남도, 사회적경제 정책 평가 ‘우수’

전국 평가서 올해 첫 입상
5년간 양적·질적 성장 눈길

전남도는 지난 13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한 ‘2023년 제5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회장상’을 수상했다. (사진)

사회적경제 정책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좋은 정책 발굴을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정책기반 △지원 수준 △정책 성과 △거버넌스 등 4개 분야 17개 지표를 종합 평가한다.



전남도는 올해 처음 입상했다. 특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회장상’은 전국 49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로 구성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우수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수행

한 자치단체에 주는 상으로 의미가 깊다.

전남도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2018년 1136개에 불과했던 사회적경제기업이 10월말 현재 2271개사로 5년간 무려 99.9%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고용인원 또한 지난 5년간 2400여 명이 늘고, 매출액은 2500여 억 원이 증가하는 등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김전주전남도일자리경제과장은 “도민과 기업, 시군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상 결실을 거뒀다”며 “그동안 쌓아 올린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지속 성장하도록 기업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